"이민 1.5세대 이상 37%만 '나는 한국인이다' "

해외 이민 후 자녀 세대로 갈수록 한인으로서 정체성 및 모국과의 연대감이 점차 희박해진다는 미국 한인사회 대상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16일 '연합뉴스' 에 다르면 나종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전날 주뉴욕총영사관 의뢰로 뉴욕, 뉴저지, 펜실베이니아, 코네티컷, 델라웨어 등 미국 동북부 5개 주에 거주하는 한인 동포 1천251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주뉴욕총영사관에서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민 1세대 응답자의 66%는 자신을 한국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미국인이기도 하고 한국인이기도 하다' 라고 답한 이민 1세대는 32%였다.

이민 1.5세대 이후 세대에선 이 같은 응답 비중이 뒤집혔다. 1.5세대 이후 응답자는 '나는 한국인이다' 라고 답한 비중이 37%인 반면, 미국인이기도 하고 한국인이기도 하다는 응답(57%)은 과반을 차지했다.

▲ 미국 이민 1.5세대 이상의 37%만이 자신을 한국인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사진=shutterstock

차세대가 한인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선 40대 이상 연령대는 '매우 필요하다' 라는 응답 비중이 70~80% 이상으로 높았지만, 30대는 58%, 20대 이하는 46%로 떨어졌다.

한국을 자랑스럽게 여기는지에 관해서도 40대 이상 연령대는 '매우 자랑스럽다' 라는 응답 비중이 70~80% 이상으로 높았지만, 30대는 66%, 20대 이하는 57%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인 동포가 모국에 대해 기여하는 게 중요하다는 문항에도 이민 1세대는 76%가 '매우 중요하다' 라고 답한 반면, 1.5세대 이후 세대는 같은 답변 비중이 57%로 적었다.

나 교수는 "세대가 거듭되고 연령이 낮아질수록 한인 정체성 및 모국과의 연대감이 점차 희박해지고 한국어 사용 및 한국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떨어지면서 미국 사회·문화에 더욱 동화되는 경향이 있다" 라고 평가했다.

이어 "차세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업 및 취업 지원을 통해 미국 내 주류사회 진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차세대 동포 네트워크 강화와 연계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라고 제언했다.

그는 "재외동포청이 발족하고 민족 정체성 제고를 정책 목표로 삼고 있지만 정체성 인식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그동안 거의 없었다" 며 "이번 조사 결과가 관련 정책 수립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2024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참가자 모집

한국 재외동포청이 차세대 동포의 한인 정체성 함양과 한인 리더로서의 역량 강화를 위해 개최하는 '2024 세계한인차세대 대회(2024 Future Leaders' Conference)' 참가자를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만 25~45세의 재외동포 중 ▶각 전문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동포사회 발전에 기여한 자 ▶정치, 경제, 법률, 주요 언론, 문화, 예술 및 국제기구 등 종사자 ▶지역별 우수 차세대 단체, 전문가 단체의 임원 등으로 ▶공관의 추천을 받은 자이다.

모집 인원은 총 70명이며, 모집 기한은 오는 2월 29일(목)이다.

▲ 2023년 개최된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참가자들이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재외동포청

신청자 가운데 ▶거주국 및 한인사회에서의 활동 내용 ▶동포사회 기여 내용, 참여 및 활동 실적, 재외동포 정책사업 참여 실적 등 ▶해당 전문 분야 전문성 및 업적, 향후 성장 가능성 ▶공관 추천 의견 등을 종합해 참가자를 선정한다.

남가주 지역 참가 지원자는 LA총영사관에 참가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이메일(dous03@korean.net)로 접수해야 한다. 선발 결과는 오는 3월 15일(금) 이전에 공관 및 개별 안내한다.

참가자로 선발되면 왕복 항공료(일반석, 실비)의 50%, 숙식 그리고 여행자 보험 등이 지원된다.

2024 세계한인차세대대회는 오는 4월 30일부터 5월 3일까지 3박 4일 동안 한국에서 열린다. 기조강연과 정부기관 인사 예방, 토론과 네트워킹, 산업시찰, 문화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LA총영사관 홈페이지–뉴스–공관 새소식' 에서 확인할 수 있다.